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통제가 심리적인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지환 · 김연화 · 유제민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부적응적 심리상태와의 관계에서 성과 자기통제의 역할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중2 패널 5차년도 자료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구성된 2,870명(남자는 1,470명, 여자는 1,400명)이다. 이 연구 결과, 애착과 자기통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과 자기통제의 역할 검증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기통제가 애착과 부적응적 심리상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이 애착과 심리적인 부적응 사이에 중재효과를 보였고 자기통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과 부적응적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개입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점도 찾을 수 있다. 최근 아버지와의 애착이 주는 효과가 다수 연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부적응적 심리상태로 측정된 우울과 불안변인 또한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청소년의 애착, 자기통제, 중재된 매개효과

모지환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사회복지학). jhmo386@db.ac.kr

김연화 조선이공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아동학). hellocharisma@hanmail.net

유제민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심리학). pavlov2@kangnam.ac.kr

* 이 논문은 2010년도 대불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씌어진 것입니다.

1. 서론

청소년 개발원의 건강행태조사(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5.6%(남 39.6%, 여 51.9%)이었으며, 이 수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우울감 경험율은 30.0%,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22.8%, 자살시도율은 4.8%로 나타났으며, 이 3가지 조사의 결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우울감 경험율은 28.5%(남자 24.2%, 여자 33.0%), 자살사고율은 22.7%(남자 17.7%, 여자 27.9%), 자살시도율은 5.0%(남자 3.6%, 여자 6.5%)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의 정밀조사로 실시한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에 의하면 불안장애도 23.2%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07).

위의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의 반영은 청소년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 및 대인관계와의 상호교류를 강조하는 변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어떻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해주는 Bronfenbrenner(1995)의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선행되고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주요환경은 청소년 자신과 부모, 학교의 교사 및 친구관계로 대변되므로 청소년 자신과 이들 대인환경과의 적응과정에서 유발되는 긍정, 부정의 유대감에 따른 영향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유대감의 영향과 함께 청소년기는 가정문제, 학업과 진로고민, 대인관계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 이탈과 비행, 자살시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감수성도 예민하고, 사물과 사건을 대하는 기제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우울과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이경진·조성호, 2004; 홍영수·전선영, 2005), 특히 부모와의 애착정도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나 우울, 불안, 소외감 등의 정

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진, 2000; 허나원, 2001). 그러나 청소년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교사와의 애착정도는 부모와 또래 이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조정아, 2009)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내면적, 환경적 어려움은 청소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자기통제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애착대상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므로 청소년기의 애착대상과 자기통제와의 관련성이 탐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의 연구는 주요애착대상과 일탈, 비행 등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제시된 반면, 청소년기의 우울이나 불안의 자아일탈에 초점을 맞춘 주요애착대상과 자기 통제와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더구나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우울증이나 불안, 정신증을 더 많이 경험하고 우울 수준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상기해 볼 때, 각 변인들 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따른 주요대상과의 애착정도는 결국 자기통제의 차이에 의해 상당부분 좌우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일상에서 청소년의 자기통제정도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자기통제 연구는 대부분 유아 및 아동에 치우쳐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은숙 외, 2009). 왜냐하면 자기통제의 발달은 청소년의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성공적인 삶을 예측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haffer, 2000).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는 사후관리 차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주요애착대상자의 외부적 지지와 함께 청소년 스스로의 통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청소년기의 주요대상과의 애착정도는 우울이

나 일탈 등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며 자기통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고찰 해 볼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주요애착대상과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자아일탈과의 관계 및 주요애착대상과 자기통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청소년의 자기통제가 애착과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애착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통제의 성차를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심리적 부적응과 애착대상과의 관계, 성별 차이를 모색하여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이나 교육적 전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자기통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애착(부모, 교사, 친구)과 자기통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둘째, 청소년의 자기통제는 애착과 심리적 부적응(불안, 우울)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셋째, 청소년의 애착과 심리적 부적응(불안, 우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통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것인가?

2. 이론적 배경

1) 애착의 문제가 심리적인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급변하는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 청소년기의 자기통제는 중요하다(송명자, 1995; Rose, 1991). 그러나 청소년기의 자기통제는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로, 그 영향력 있는 변인 중 하나가 애착양상이다.

Bowlby(1958)가 주장한 유아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시킨

애착은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발달변인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김인숙·이경남, 2004; 유안진·이점수·정현심, 2006; 이경남, 2002), 청소년기의 애착은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한다거나, 선생님과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다거나, 현재 사귀고 있는 친구들과 무엇 이든 터놓고 이야기하고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거나 하는 심리상태(조은정, 2008), 혹은 타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는가, 얼마나 그 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가 등의 정도(황성현, 2009)로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 개인에 따라 부모, 교사 및 친구와의 애착정도는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차가 있고 그 중요성의 비중 또한 쉽게 논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연구결과 또한 분분하게 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황성현(2009)에 의하면 청소년의 타인들과 의 애착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현재상황(이혼, 별거 등)이 어떠한든 간에 부모와의 애착이 약하면 아이들 은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박영신 과 김의철(2004)은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 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성이 상호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개인적 요인과 주변 여건과의 상호작용의 질은 청소년에게 위협요인이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정서나 행동 문제에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교사와의 애착의 증가는 중학생의 공격성을 감소시켰으며(신희경, 2007), 친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자살충동을 적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문경숙, 2007). 또한 적대적인 친구관계나 왕따나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을 때는 자살사고와 관련이 깊었고(김기환·전명희, 2000), 부정적인 친구관계는 자살충동과도 관련이 있었다(손병덕, 2005),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증을 적게 경험하였지만(이경남, 2002), 부모지지는 자아통제력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아·이혜은, 2008).

2) 애착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초기청소년기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Steinberg, 1990).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자율성, 독립을 추구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빈도는 감소하면서(이시은, 이재창, 2005), 상대적으로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애착욕구가 증가하게 된다(Allen & Land; Steinberg & Silvergerg, 1986).

청소년 초기는 친구관계로 애착요소가 도입되는 시기임을 암시하는 주요 연구들(Hazan & Zeifman, 1994; Nickerson & Nagle, 2005)에서는 또래와의 애착의 증대는 청소년들의 지지적인 우정의 형성으로 극대화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지지적인 우정은 장차 오랫동안 이어질 친밀한 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우정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친밀성을 경험하므로(Nickerson & Nagle, 2005) 친구와의 애착 또한 중요하다.

Savin-Williams와 Berndt(1990)의 주장은 부모와 또래 애착에 대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또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관심을 위한 친밀함의 대상이 되는 데 반해, 부모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도덕적, 개인적 이슈에서 친밀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또래가 청소년 시기에 자주 친밀함의 대상으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삶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애착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경우 부모가 더욱 빈번히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황창순, 2006)며 부모와의 애착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 그러나 교사 또한 강력한 모델이며 사회화의 대리인으로서 학생들의 적응과 발달에 부모 다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우채영·임재국, 2009)로 밝혀진 점에서 중요한 애착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기통제란 Muraven과 Baumeister(2000)에 의하면 자신에게 보다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각적 만족을 억제하고, 일시적 충동에 의한 행

동을 자제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자아통제란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을 억제하거나 행동, 사고 및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Tangney et al., 2004). 이처럼 청소년기의 자기통제는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며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성장에 기본적인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사회화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기통제와 관련된 변인을 찾아내는 일은 중요하다(박은숙 외, 2009).

이정님(2002)의 충동통제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충동통제, 또래애착, 자아 존중감, 어머니 애착 순으로 인과효과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충동통제와 어머니 애착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아통제력이 행동 및 정서적 문제와도 관련됨이 밝혀졌으며(Baumeister et al., 1994; Tangney et al., 2004),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현미, 옥선화, 2001).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 시기의 주요대상과의 애착은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 및 친구애착과 자아통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애착 및 자기통제와 심리적인 부적응과의 관계

Gottfredson과 Hirschi(1990)은 일반이론을 통해 주양육자(부모) 양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이론에서 모든 개인은 비행을 억제하는 성향에서 차이가 있고, 그것은 바로 자기통제의 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자기통제의 차이는 사회화의 잘못, 특히 조기사회화에서 잘못된 양육이 원인이 되며 부모의 감독이 소홀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과 제재를 해 줄 사람의 부재로 인해 자기통제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통제는 10세-12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형성되고, 한 번 형성된 자기통제는 평생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았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박현수, 2009: 123에서 재인용).

이렇듯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양육관계형성 과정에서의 자기통제의 영향도 중요하나 또래집단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비해 참조집단으로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또래집단은 비행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대로 또래집단의 규범이 비행청소년의 행동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Micucci, 1998). 또래집단의 규범과 또래집단에 속해있는 비행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쌍방향적, 즉 상호적이기 때문이다. 또래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또래압력에 못 이겨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 비행청소년들은 서로 유사한 특성 때문에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고 함께 어울리면서 일탈행동을 상호간에 강화될 수 있다(Brown, 1990; Micucci, 1998). 이처럼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주요대상과의 애착관계 형성은 정서와 일탈행동과의 관련성을 함축하는 보호기제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기통제는 비행의 원인인 사회적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교제 등과 같은 요인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로 인해 부모와의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은 비행과 허위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기통제를 통제하면 이들 요인들은 비행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Piquero & Bouffard, 2007).

이은주와 정익중(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탈적 자아개념은 비행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비행경험으로 인해 청소년의 일탈적 자아개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rtein과 Ruther, Roy(2005)의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듯이 낮은 자기통제는 청소년의 행동문제, 정서문제와 관련이 있으며(Wills & Stoolmiller, 2002), 특히 다양한 일탈행동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Beichler-Robertson et al., 2003; Morris et al., 2006; Stylianou, 2002; Unnever & Cornell, 2003).

이처럼 자기 통제는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

적 문제와도 관련되며(Baumeister et al., 1994; Tangney et al., 2004), 높은 우울수준이 비행이나 자살 등의 사회문제 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정영주·정영숙, 2007),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20-30%가 문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Craghead, 1991), 청소년의 낮은 자기 통제는 비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이경님, 2002).

4) 자기통제와 성차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바람직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능력 중의 하나로 자기통제가 지적된바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자기 통제에 대한 성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남아보다 여아의 자기통제가 높다는 연구(이경님, 2001, Humphrey, 1982; Kendall & Wilcox, 1979)가 있는 반면, 남아와 여아 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허수경·이경님, 1996; Schwarz, Schrage & Lyons, 1983)가 제기되고 있어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단정하는데 무리가 있는 실정이었다.

청소년의 자기통제가 높고 낮음은 물론 문제행동의 개인차로 연결될 수 있으나 김두섭과 민수홍(1996)에 의하면 자기통제에 의해 문제행동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연령, 성별, 기회구조 등의 영향을 받는 개연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자기통제는 유아기동안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기간에 적절한 자기통제가 획득되어간다는 점(김현숙, 1998; 이경님, 2000)과 적절한 자기통제는 상황에 따라 개인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아통제와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모색하는 연구가 수반될 때 성별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청소년의 주요대상과의 애착 정도 및 일탈적 자아와의 관련성에 따른 자기통제의 영향력 검증은 결국 성별차이와 자기통제와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는 청소년의 애착대상 및 일탈적 자아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 2,905명의 사례에서 종속변인인 우울/불안 및 폭력적 행동의 총점을 기준으로 투여된 독립변인인 애착과 자아통제를 투여하여 Mahalanobis 거리가 10이상인 사례를 극단치(outliers)로 정의하여 제외하였다. 중학교 3학년으로 구성된 최종 2,870명 사례 중 남자는 1,470명이었고 여자는 1,400명이었다.

2) 변수측정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패널의 자료 중 부모(15문항, 이중 3개 문항은 역채점), 교사(3문항) 그리고 친구(3문항)와의 관계로 애착요인을 구성하였고, 자아통제 6문항과 자기신뢰 3문항을 자기통제 요인으로 합산하였다. 심리적 부적응은 우울과 불안(7, 8, 9번은 역 채점)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패널 자료의 변인 중 우울과 불안은 각각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1996)와 STAI(Stait-Trait Anxiety Inventory, 1970) 문항에서 선별한 것이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애착과 부적응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 자기통제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경로분석을 통해 매개와 중재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후 확인된 경로 모형을 결합하여 중재된 매개모형이 입증되는지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착은 자기통제와는 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인 부적응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이 있었다($p < .01$).

<표 1>애착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성(별)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투입순서	독립변인	R ²	R ² 증가분	F	βeta
1	애착(A)	.240	.170	15.36**	-.17**
2	성(B)	.101	.072	5.28*	-.07*
3	A×B	.121	.065	4.35*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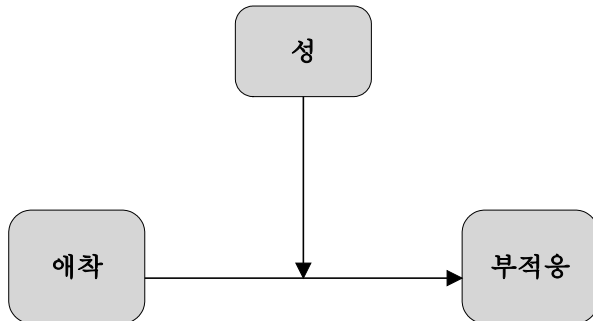
* p < .05 ** p < .01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론적 근거(Schmidt, Lerew & Joiner, 1998; Lyons-Ruth, 1996)에 따라 애착과 심리적인 부적응의 관계에 성차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가. 애착과 심리적인 부적응의 관계에서 성의 조절효과

애착과 심리적인 부적응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난다는 것은 성이 중재(moderated)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립변인(A)이 종속 변인(C)에 영향을 끼치지만 중재 변인(B)이 종속 변인의 변화양상을 좌우하는 관계이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부적응에 끼치는 애착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은 평균변환(mean centering)한 후 가변수로 처리한 성과의 교차 항을 투입하여 종속 변인인 심리적인 부적응을 설명하는



<그림 1> 애착과 성이 심리적인 부적응에 미치는 중재모형

<표 2> 애착, 자기통제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 간의 Pearson 적률상관(N=2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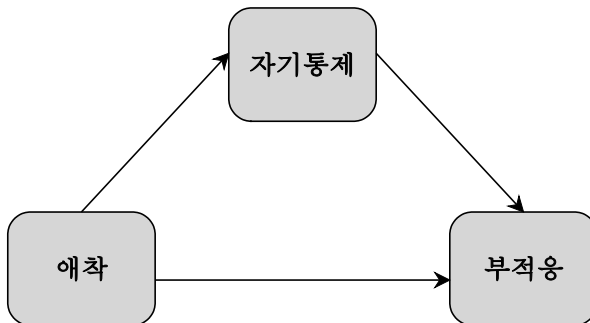
	애착(1)	자기통제(2)	부적응(3)
1	1		
2	.311**	1	
3	-.232**	-.346**	1

** p < .01

변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애착은 심리적인 부적응을 24% 설명하며, 성은 심리적인 부적응을 10.1% 설명하고,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심리적인 부적응을 12.1% 설명하였다. 즉, 두 변인의 교차 항을 투입했을 때 R² 증가분이 심리적인 부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 = .04, p < .05$). 따라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나. 애착과 자기통제가 심리적인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자아통제와 자기신뢰를 합하여 자기통제로 정의하였다. <표 2>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애착(A)→심리적인 부적응(C)이 유의하고, <표 1>의 상관관계에서 시사되고 있듯이, 애착(A)과 자기통제(B)의 상관이 유의하다면 매개(mediated)일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애착과 자기통제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매개모형

<표 3> 애착→심리적인 부적응에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R ²	R ² 증가분	Beta
독립변인: 애착(A)	.24		-.17**
종속변인: 부적응(C)	.18		
독립변인: 애착(A)	A → C	.151	-.13**
종속변인: 자기통제(B)	B → C	.152	-.14**
종속변인: 부적응(C)			

** p < .01

이 연구의 요인 들 간에는 이론적으로 이 가능성이 시사되었으므로 (Piquero & Bouffard, 2007), <표 3>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가 입증되려면 A→C가 유의하고 A→B도 유의하며, A, B를 독립변인으로 C를 설명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단 A→C에서 A의 설명량보다 A, B→C 에서의 A의 단독적인 설명량이 작아야 한다(Baron & Kenny, 1986).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A, B→C에서 B가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표 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통제는 애착과 심리적인 부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Baron & Kenny, 1986)을 추가하였다. 독립변수인 애착이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로 가는 경로를 a, 매개변수인 자기통제가 종속변수인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가는 경로를 b 라고 할 때, 그 경로 a, b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는 계산공식은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이다. <표 4>에는 Sobel 검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Sobel 검증결과도 자기통제가 애착과 심리적인 부적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Sobel test)

변수 간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a	추정치 (표준오차)b	Zab
애착 → 자기통제 → 심리적인 부적응	.18(.03)	.14(.02)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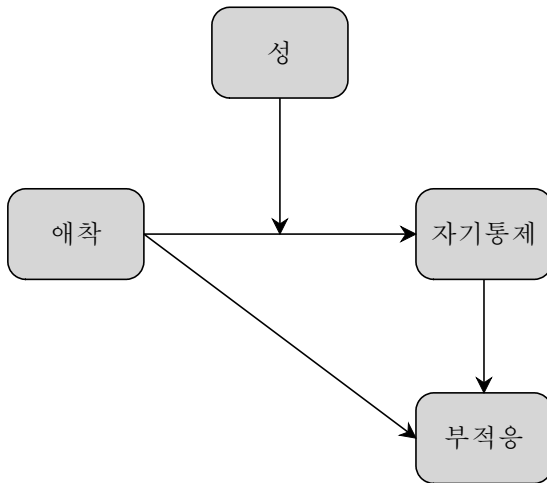
* p < .05

다. 애착, 성, 자기통제가 심리적인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착이 심리적인 부적응에 끼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통제가 매개하는 애착→심리적인 부적응의 모형은 성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성에 따라 매개관계의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에는 중재된 매개모델(moderated mediation model)로 변화된다(Judd, Kenny & McClelland, 2001). 중재된 매개는 중재변인인 성(B)의 역할에 따라 애착(A)과 심리적인 부적응(D)의 관계에서 자기통제(C)가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중재여부에 따라 매개가 좌우되는 관계이다. 전형적인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중재변인(B)이 이 연구에서와 같이 성으로 구분되는 범주 변인일 경우는 하위 집단(subgroup) 방식이다. 즉, 한 요인을 특정한 기준으로 구분한 각기 다른 표본에서 C가 A와 D를 매개하기도 하고 매개하지 않기도 하는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모형을 여자 청소년



<그림 3> 중재된 매개의 가설적 모형경로

집단(N= 1400)에 적용했을 때, 자기통제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1단계; 애착→심리적 부적응($\beta = -.27, p < .001$), 2단계: 애착→자기통제($\beta = .16, p < .01$), 3단계: 애착→심리적 부적응($\beta = -.20, p < .001$), 자기통제→심리적 부적응($\beta = -.13, p < .01$)]. 그러나 남자 청소년 집단(N=1470)에서는 [(1단계; 애착→심리적 부적응($\beta = -.19, p < .001$), 2단계: 애착→자기통제($\beta = .11, p < .01$), 3단계: 애착→심리적 부적응($\beta = -.18, p < .01$), 자기통제→심리적 부적응($\beta = -.05, p < .01$)]이 확인되었다. 즉, 3단계 절차인 애착→심리적인 부적응의 경로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통제는 추가적인 매개효과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는 B라는 중재변인(성) 집단에 따라 A(애착)와 D(심리적 부적응)와의 관계에서 C(자기통제)가 매개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중재된 매개 관계가 확인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타인(부모, 교사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자기통제와의 관련성, 애착과 심리적인 부적응(우울이나 불안)같은 내현적인 문제와의 관련정도를 고찰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애착과 심리적인 부적응에 대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의 성차를 살펴봄으로써 자기통제를 활용하는 교육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부적응에 끼치는 애착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표 2에서 보듯이 성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경험에 대해 많은 갈등적 기억을 지니고 있는 소위 몰두적(preoccupied) 애착상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자의식이 강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아서 경계선적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에게 나타나는 섭식장애나 자살행동 그리고 다양한 장

애들은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주된 원인이라는 연구결과(Kenny & Hart, 1992; Armstrong & Roth, 1989)도 제시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여아의 의존성을 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나(Lopez, 1989), 분리-개인화를 더 이른 시기에 강요하는 남아에 대한 양육 방식 등을 고려할 때(Pinaquy, Chabrol, Simon, Louvet, & Barbe, 2003), 전 생애 발달의 관점에서 애착의 발달과 애착 실패로 초래되는 임상적인 문제의 형성에는 성역할(gender role)과 사회화 과정(social process)이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이 연구에서는 그림 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애착과 심리적 부적응 간에 성의 조절효과가 있었으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애착의 양상이나 부적응 행동의 유형에서 행동에 성차가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경남, 2002; O'Brien, 1996; Rainey & Border, 1997)과 일치된 결과이다.

자기통제는 자신에게 보다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각적 만족을 억제하고, 일시적 충동에 의한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Muraven & Baumeister, 2000), 이 연구에서는 자아통제(6 문항)와 자기신뢰(3문항)를 합산하여 자기통제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신뢰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애착은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를 높이며, 이 자기통제는 애착과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부적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4> 참조). 이것은 부모 교사 및 친구들과의 애착형성이 잘 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통제도 높을 때 심리적인 부적응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도 자기통제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지만 성별 차이가 있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기통제가 애착과 부적응적 심리상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없었다. 성에 따라 애착과 부적응적 심리상태의 관계에서 자기통제가 매개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중재된 매개(moderated mediation)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애착과 청소년기의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통제의 효과는 부적응 행동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Rosenstein & Horowitz, 1996).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미래에 대한 확신성과 진로 의식 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우울과 불안 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더 보편적일 수 있다는 이은경(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시사되었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기통제의 기능이 더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Schmidt와 Lerew 및 Joiner(1998)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임상적 양상은 기본적으로 부적응적 심리상태의 범위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심리상태를 우울과 불안으로만 측정하였다. 청소년기의 경우, 우울과 불안 같은 정서문제는 여자들에게서 더 보편적으로 발견된다(Main, 1996). 이에 비해 비행이나 일탈행동 같은 행위문제는 남자가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Lyons-Ruth, 1996).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부적응적 심리상태를 우울과 불안에만 국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성별차이가 나타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남자와는 달리 여자의 경우 투여된 애착의 하위변인들(부모, 교사, 친구)에서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Durbin-Watson = 2.643).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애착관계를 포괄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비해, 남자 청소년들은 부모와 친구 그리고 교사와의 애착관계가 다소 독립된 차원으로 구성되는 듯하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양상이 나이에 따라 연속적이고 반복된 형태로 대인관계에 재현된다는 기본가정(Main & Solomon, 1990)에 대해, 대상에 따른 애착의 다차원적 속성이나 문화적인 차이 등을 비교하는 것은 추후 연구로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세 가지 영역(부모, 교사, 친구)의 독립된 애착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자기통제나 부적응적 심리상태에 끼치는 영향이 서로 상쇄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애착을 하위 요인 별로 구분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애착과 개인적 특성인 자기통제가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심리적인 적응을 유지시키는 세부적인 개입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기신뢰를 포함한 자기통제를 증가시키는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시사한 것은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자기통제가 애착과 심리적인 부적응을 매개하나 이러한 효과에는 성별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애착의 다차원적 속성이나 부적응 문제의 양상에 따라 성별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부가적인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애착의 경우 부와 모를 따로 측정한 후 그 차이를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 태도의 일치여부와 보완성 정도 등이 자녀의 사회성이나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3). 이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최근에 아버지와의 애착이 주는 효과가 다수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임상 군이 아니라는 점도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다. 자기통제와 자아통제의 관계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개념도 추후 연구에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애착이나 부적응적 심리상태 변인을 단일 요인으로 측정하는 것도 오차를 증가시킨 원인이 될 수 있다. 애착은 부모와 친구 그리고 교사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심리적인 부적응인 우울과 불안은 단일한 차원이 아니다(Degnan & Fox, 2007). 따라서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위해서는 하위 요인들로 구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식일 수 있다. 또한 자기통제는 인지적인 매개변인일 수 있지만 안정된 독립변인일 수도 있으며(Lent, Brown & Hackett, 1994), 중재변인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후 비교연구를 통해 좀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김기환·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27-152.
- 김두섭·민수홍. 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김수진. 2000.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3(2): 149-170.
- 김인숙·이경남. 2004.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한국가정과학회지』 72(2): 97-113.
-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현미·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또래특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문경숙. 2007.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 박영신·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 관계, 친구 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87-115.
- 박은숙·조오숙·김영희. 2009. “부모의 훈육방식과 청소년의 성, 연령, 자아개념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213-241.
- 박현수. 2009. “청소년 비행발전의 영향요인: 비행통제와 자아통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3): 365-399.
- 손병덕. 2005. “일반청소년, 학습장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충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예측.” 『청소년학연구』 12(1): 207-228.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희경. 2007.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와의 애착이 공격성 발달에 미치

- 는 보완적 역할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44(1): 117-141.
- 우채영·임재국.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또래와의 적대적 인간 관계, 학교폭력경험, 일탈 및 대처행동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6(4): 145-166.
- 유안진·이점숙·정현심. 2006.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1): 167-181.
- 이경남. 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 연구』 7(1): 99-120.
- 이경남. 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2): 97-110.
- 이경남.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진·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시은·이재창. 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정익중. 2009. “청소년 비행과 일탈적 자아개념의 상호적 인과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2): 191-221.
- 정영주·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또래지지 간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조은정. 2008.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6): 299-322.
- 조정아. 2009.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 변화에 관한 중단 연구: 변화경향과 개인차에 대한 성별·부모·또래·교사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3): 167-192.

- 질병관리본부. 2007.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보건정책 개발." 순천향대학교: 질병관리본부 (공편).
- 청소년의 건강행태조사. 2005. 청소년 개발원 연구보고서.
- 최정아·이혜은. 2008. "청소년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1): 295-326.
- 허나원. 2001. "아동의 우울과 애착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수경·이경님. 1996. "인지양식유형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의 발달." 『아동학회지』 17(2): 221-233.
- 홍영수·전선영.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4): 125-149.
- 황성현. 2009. "청소년의 음주·흡연행위에 관한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이론적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0(1): 113-139.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Allen, J. P., & D. Land. 1986.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319-335.
- Armstrong J., & D. M Roth. 1989. "Attachment and separation difficulties in eating disorders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8: 141-155.
- Baron, R. M, & D.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D. M. Tice. 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eck, A T., Steer, R A., & G K Brown. 1996. *Beck Depression Inventory manual* (2nd ed).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Beichler-Roberston, G., Potchak, M. C., & S. Tibbetts. 2003. "Low self-control, opportunity, and strain in student's reported cheating behavior."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26: 23-53.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1.
- Bronfenbrenner, U. 1995. The bio-ecological model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Mben, P., Elder, G H., & K. Luscher(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own, M 1990.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Northvale, NJ: Jason Aronson Inc.
- Craghead, W. E. 1991. "Cognitive factors and classification issu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311-326.
- Cartein, F., Ruther, C. M. E., & F. B. Roy. 2005.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 The role of self-contro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58-69.
- Degnan, K. A., & N. A. Fox. 2007.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s: Multiple levels of a resilience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729-746.
- Dunkley, D. M., Zuroff, D. C., & K. R. Blankstein. 2003. "Self-critical perfectionism and daily affect: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234-252.
- Gottfredson, Michael. & Travis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zan, C. & Zeifman. 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and D. Per;man(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 5: 151-177. London:

- Jessica Kingsley.
- Humphrey, C. C. 1982. "Children's and teacher's persecutive on children's self-control: The development of two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0: 624-633.
- Judd, C. M., Kenny, D. A., & G. H. McClelland. 2001. "Estimating and testing mediation and moderation in within-Subject designs." *Psychological Method*. 6(2): 115-134.
- Kendall, P. C., & L. L. Willcox.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Kenny, M. F., & K. Hart. 1992.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eating disorders in an inpatient and a colleg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521-526.
- Lent, R., Brown, S., & F. Hackett. 1994. "Toward a unified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cademic interests,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76-87.
- Lyons-Ruth, K. 1996. "Attachment relationship among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The role of disorganized early attachment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64-73.
- Main, M. 199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2. Overview of the field of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4(2). 237-243.
- Main, M., & J. Solomon.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Chicago :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cucci, J. A. 1998. *The adolescent in family therapy: Breaking the cycle of conflict and control*.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orris, D. G., Wood, P. B., & R. G. Dunaway. 2006. "Self-control, native traditionalism, and native American substance use: testing the cultural invariance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Crime & Delinquency*. 52: 572-598.
- Muraven, M. & R. F. Baumeister. 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26: 247-259.
- Nickerson, Amanda B. & J. Nagle, Richard. 2005.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2) 223-249.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 Pinaquy, S., Chabrol, H., Simon, C., Louvet, J-P., & P. Barbe. 2003. "Emotional eating, alexithymia and binge-eating disorder in obese women." *Obesity Research*. 11(2): 195 - 201.
- Piquero, A. R., & J. A. Bouffard. 2007. "Something old, something new: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Hirschi's redefined self-control." *Justice Quarterly*. 24(1): 1-27.
- Rainey, L. M., & L. D. Border. 1997. "Influential Factors i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 of Early Adolescence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60-172.
- Rose, A. 1991. *The relationship of self-controlling skills to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 Rosenstein, D. S., & H. A. Horowitz.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44-253.
- Savin-Williams, R., & T. J. Berndt. 1990.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Feldman, S., & G.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277-307.
- Schmidt, N. B., Lerew, D. R., & T. E. Joiner. Jr. 1998. "Anxiety sensitivity and pathogenesis of anxiety and depression: evidence for symptoms specifici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165-177.
- Schwarz, J. C., Schrage, F. B., & Lyons, A. E. 1983. "Delay of gratification by preschoolers: Evidence for the validity of the choice paradigm." *Child Development*, 54: 620-628.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elmont: Wadsworth/Thomson Learning.
- Spielberger, C. D.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einberg, L. 1990. Interdependency in the family: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S. Feldman & G.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nberg, L., & S. E. Silverberg.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A. L. Boone.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 271-324.
- Unnever, J. D., & D. G. Cornell. 2003. "Bullying, Self-Control, and ADH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129-147.
- Wills, T. A., & M. Stoolmiller. 2002. "The role of self-control in early escalation of substance use: A time-varying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986-997.

모지환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사회복지학 박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 호세이(法政)대학 오오하라(大原) 사회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과 동경도 노인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최근 연구로 “노인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다층분석”(2009),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충동에 미치는 영향”(2010),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예측 모형: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비교를 중심으로”(2010) 등이 있다.

김연화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아동심리를 전공하고(문학박사), 조선이공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광주대, 광주여대, 호남대 등에서 강의한 바 있다.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2008)의 연구가 있으며,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심리적 적응 등의 연구에 관심이 있다.

유제민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심리학박사),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에서 임상수련과정을 거쳤으며 한국 건강심리학회와 홍보이사와 학술이사를 역임하였다. 3년 간 FM 라디오 ‘마음을 묻다’의 진행자이기도 하였다. 최근에 임상 및 건강 자료의 신경망 분석을 통해 질병 및 예후의 예측모형을 구성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강남대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최우수 강의교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0. 10. 28. 접수; 2010. 12. 05. 수정; 2010. 12. 21. 채택]